

## 걱정이 아닌 감사

빌립보서 4:4~9

[Oct. 11 2009 추수감사주일]

**들어가는 말;**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앞날과 직업, 건강, 자녀 등에 대한 일상적인 두려움 외에도 테러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아주 비생산적인 일일 뿐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힘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찾아왔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감당해야 할 마음 아픈 일이나,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 실망스러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끊임없이 걱정하다가 생긴 병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43%가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겪고 있고요, 병원을 처음 찾은 사람들 중에 79~90%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이나 문제 때문에 의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냉혹한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묘비에는 이런 비문을 새겨 넣어도 될 것입니다. “서두르고 걱정하다가 여기 묻혔노라!” (Hurried, Worried, Buried).

월터 카버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들 가운데 단지 8퍼센트만 실제로 염려가 될 것 만한 문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92퍼센트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들이거나, 걱정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온갖 상상으로 만들어낸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십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가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의 햇빛 아래 푸른 잔디밭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서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모금 마시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금 그는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 그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로마

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들리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사형 집행인들이 그의 목을 자르기 위해 그를 데리러 오는 소리거나, 간수가 그의 무죄 석방 명령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주기 위해 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의 처지는 불쌍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게 될지 죽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막상 걱정애 사로 잡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바울은 전혀 걱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4:6)

다음번에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에는 하주 빨리 마음의 기어를 바꾸어, 그 대신에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조건반사 작용과도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사작용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사작용은 배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손을 뻗다가 뜨거운 쇠에 손이 닿으면 얼른 손을 거둡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것으로부터는 자동적으로 손을 땡니다. 어린아이들도 뜨거운 것으로부터는 손을 땡 것입니다.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양쪽 귀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끔찍하군요. 어떻게 하시다가 양쪽 귀 모두에 화상을 입었나요?”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리미질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착각을 좀 해서 수화기 대신 다리미를 귀에 댄지요.”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끔찍하군요. 그런데 다른 다른 쪽 귀는 어떻게 해서 화상을 입었나요?”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은 자율적인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동과 반응들은, 조건에 따르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무릎이 떨리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지 우리의 기도제목들을 하늘로 향해 폭격하듯이 쏘아 올려대는 것 이상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4:6).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이라도 감사는 빼놓을 없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특별히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묵상하면, 그에 비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9-11).

만일 내가 그 기도문을 썼다면 아마 다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마음을 표현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께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앞에 저의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저의 필요와 염려를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 당신의 나락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일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당신의 뜻 밖의 일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과 같은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일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그 문제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5-7)

당신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찾아온 폭풍을 타고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이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경호원을 세워 지켜주시거나, 우리의 마음의 주변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걱정을 끌고 다니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염려의 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나 곤고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평강을 유지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따라야 합니다. **8절** “끝까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하고 영적으로 해가 될 뿐 아니라, 걱정이라는 괴물 같은 짐승에게 먹이를 줘서 힘을 키우는 그릇된 생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신 자신을 향해서 말을 걸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며,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그러한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주님을 알고 지내왔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어둠이 임하면 누구나 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앞날에 대해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세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렌즈를 통해 이치를 따져가며 분명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

면서 당연히 올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앓고 있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평안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